

말씀의 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신앙 <요한복음 1장 9~14절>

성탄절은 귀로 듣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실체가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또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때론 그분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체온을 느끼기도 하고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들어와 해변을 걸으셨고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마을과 집들을 다니시며 피조물인 인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몰라보고 그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요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죽으심이 곧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실제적 구속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며 이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확실해졌으며, 말씀이 실체가 되심으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의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이 실체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지고 실체가 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은 공기 중으로 그 시간에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실체가 되고 이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 즉 살과 뼈와 피를 이루었으며, 말씀이 실체가 되신 그분의 육체가 깨어져 죽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대속했는가를 말합니다. 이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실체가 되었는지를 떠올리면서 놀라움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후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

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역사책에서는 그를 옥타비아누스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등장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하나까지도 다 예언의 실제적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릴 때를 회상하며 **“그 뼈 중에 하나라도 꺾이지 않도록 하시려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그들의 말은 공기 중으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것 같았고, 그들의 육신 또한 시대가 지나면서 다 죽었지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말씀이 실체가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신앙에 실체가 없는 분, 증거가 없는 분 이번 성탄절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실체가 되는 순간, 천국도 실체가 될 것이며 훗날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될 중요한 약속을 우리 심령 안에 실제로 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엡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실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도 실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된 목적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의 사건은 말씀이 실체가 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면서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실체로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사명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롯 유다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 팔러 나간 뒤에 곧이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팔리는 사건인데, 이로 인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과 인간이 취하는 영광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 복음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복음의 사명을 이루고 복음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우리의 시간, 우리가 많은 적든 각자가 가진 달란트등,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방향으로 볼 때 같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적 삶**입니다.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 하며 그분이 가셨던 방향을 향해 함께 일어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2015. 12. 13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12. 20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여호수아 2장 1~12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믿음을 통해 오시는 주님”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